

2018년 3월 15일(목)

### 254장 - 내 주의 보혈은

- (1)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 
내 죄를 정케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
- (2)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 
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
- (3) 날 오라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 
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
- (4) 큰 죄인 복 받아 살 길을 얻었네  
한 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
- (5) 그 피가 맘 속에 큰 증거 됩니다  
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
- 후렴 그 피가 맘 속에 큰 증거 됩니다  
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

### 379장 - 내 갈길 멀고 밤은 깊은데

- (1) 내 갈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 
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길 비추소서  
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결음씩 늘 인도 하소서
-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
- (2)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 
내 지은 죄 다 기억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 하소서
-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
- (3) 내 앞에 험산 준령 만날 때 도우소서  
밤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

3월 16일(금) 기도 담당 : 김경원 집사

## 이른아침예배

인도 : 박세훈 목사

예배를여는말 ..... 인 도 자  
 신 앙 고 백 ..... 사도신경 ..... 다 같 이  
 찬 송 ..... 254장 ..... 다 같 이  
 기 도 ..... 염동철 집사  
 성 경 봉 독 ..... 창 4:11~15 ..... 인 도 자  
 찬 양 ..... 새벽찬양대  
 설 교 ..... 『우리는 가인의 후손인가?』 ..... 이상학 목사  
 기 도 .....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..... 다 같 이  
 찬 송 ..... 379장 ..... 다 같 이  
 축 도 ..... 설 교 자

### <창세기 묵상 본문 및 설교 제목>

요 일	본 문	제 목
3월 13일(화)	창 4:1~8	가인은 우리 안에 있다
3월 14일(수)	창 4:9~10	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
3월 15일(목)	창 4:11~15	우리는 가인의 후손인가?
3월 16일(금)	창 4:16~26	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는다

※ 이른아침예배 시 성경책을 꼭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.

##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

2018년 3월 15일(목)

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,

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붙잡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.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주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 베푸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되게 하옵소서.

용서와 사랑의 하나님,

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홀히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. 그러나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. 죄와 심판의 두려움이 더할 때 더욱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유일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. 그 안에서 죄악된 본성을 뒤엎고 우리에게 소망의 길이 무엇 인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맛보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.

새문안교회의 머리되시는 하나님,

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지난 긴 역사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. 담임 목사님을 통해 허락하시는 비전과 소명을 온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함께 나누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게 하옵소서. 새 성전 건축의 과정 하나하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길 기도합니다.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묶어주셔서 귀한 성전을 주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리게 하옵소서.

이 민족을 사랑하시며 돌보시는 하나님,

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자신보다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. 북한 땅에서 고통받는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자유와 농업의 날이 오도록 이끌어주옵소서.

한 영혼을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, 주님의 뜻을 소명으로 품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복음의 일꾼이 된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옵소서. 눈물과 땀의 수고를 귀히 여겨주시며 주님 앞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게 이끌어 주옵소서.

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되기를 간구하오며,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